

SK인천석유화학, 지역주민 지원으로 ‘상생·화합’ 구현

인천 서구 주민 사랑방 ‘행복드림 커뮤니티센터’ 개관



1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화합의 공간이 문을 열었다. 재단법인 신석과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서구 신현동 155-5일대에 행복드림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11월 17일 현판식을 했다. 행사에는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과 추창진 신석 이사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김교홍 국회의원, 김종인 인천시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센터는 774㎡ 부지에 지상 5층·지하 1층, 연면적 2천325㎡ 규모로 재단법인 사무실과 어린이 돌봄센터, 지역 학생 자율학습 공간, 주민 공예 체험 공방 등이 들어섰다. 주민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도 조성됐다. 센터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하게 휴식하고 소통하는 마을 사랑방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등에서 화합...지역 상생 열매 맺다

센터 건립은 SK인천석유화학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일군

상생·화합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3년 공장 증설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했다. 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더불어 낙후된 도심을 재단장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기로 한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인근 지역 주민과 상생 협약을 맺고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2018년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마을 단장, 주민복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재단법인 신석을 설립했다. 출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재단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립형 모델을 구축했다. 재단은 이후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급식 시설 개선 사업,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인천시의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인 ‘더불어 마을’ 사업과 연계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단은 이러한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거점을 구축하고자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행복드림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주민 행복 ‘UP’

재단법인 신석은 주민 역량 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베이커리 카페, 실내 운전면허 연습장, 헬스장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는 일 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초등학교 학습 돌봄센터와 주민 대상 문화체험 공간, 공예 공방이 입주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호 종료 청소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센터 내에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추 이사장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정말 기쁘다”며 “일회성 사업보다는 다수 주민에게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 SK인천석유화학과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9년 1월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역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2, 3 재단법인 신석과 행복드림센터 전경 4 SK인천석유화학과 재단법인 신석이 11월 17일 인천 서구 신현동에서 행복드림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역 최대 현안인 환경문제 해결로 사회적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ESG 경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 대표이사는 “센터는 주민에게 약속한 지역 상생의 상징적 결과물”이라며 “지역 주민의 신뢰 없이는 기업의 발전도 없다는 생각으로 상생 경영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4